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윤석준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지난 4월 16일 발생했던 세월호 사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방송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 필자 역시 알 수 없는 눈물이 눈가에 맺히곤 했다. 또 얼마 가지 않아 전남 장성에서는 한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은 거의 한 가지로 집약된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도 선박이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의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지인들과 대화해 보면 대형 선박이 오히려 비행기보다 몇 배 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질서나 규칙이 지켜질 때 하는 말이다. 화물을 더 실어 나르기 위해 멸절된 평형수를 줄여 놓는 상황에서는 비행기보다 더 ‘불안전’하게 된다. 병원 경영자들과 대화해 보면 우리나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무방비인 곳이 여러 곳이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다녀 본 몇몇 중소병원들은 기준에 세워진 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 건물 엘리베이터가 누워있는 환자를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보니 보호자나 병원 직원이 직접 업고 이동하고 있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10위 경제규모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연수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공공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 잘 안 막히던 도로가 한참동안이나 막혀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앞서 가던 버스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운전기사가 내

러 그 환자를 버스에 안전하게 태우고 장치를 고정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다. 출근 시간이었으니 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는 등의 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장애인을 안전하게 모시는 데 자신의 불편쯤은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습으로 여겨졌다!

이상의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은 관련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지켜지는 것이다.

이에 HIRA 정책동향 이번 호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 안전’을 주제로 다뤄 보았다. 울산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상일, 옥민수 교수는 ‘환자안전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서울의과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인 박병주 교수는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관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외 의약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더욱 더 안전한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위해 노력할 점을 제시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와 의미진 전문연구원, 김소윤 교수는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본 환자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에서 의료분쟁 소송 판결문을 분석을 통해 의료소송 사고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인 신성식 기사는 ‘환자안전과 정책’을 통해 언론인의 입장에서 환자안전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팀 박춘선 팀장은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를 통해 진료정보시스템과 지불보상 방안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HIRA 정책동향 정책현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